

[보도자료] 쿠팡, 창업진흥원과 손잡고 초기창업기업 키운다

2023. 2. 1.



- 창업진흥원과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쿠팡 ‘착한상점’ 통해 기획전 진행
- 초기창업기업 35개 참여 인지도 제고 및 매출 견인 기대

2023. 2. 1. 서울 - 쿠팡이 ‘창업진흥원 기획전’을 통해 초기창업기업 상품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대에 나선다.

이번 기획전은 지난 1월 19일, 쿠팡과 창업진흥원이 이커머스 최초로 초기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 및 자원과 온 오프라인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초기창업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도약기 창업기업(창업 3~7년 차)과 재창업기업(재창업 7년 이내) 등 창업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쿠팡은 ‘착한상점’에서 기획전을 진행한다. 착한상점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인들의 마케팅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상생전문관이다. 참여 기업은 창업진흥원의 ‘22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으로 육성한 약 700여 개 기업 중 초기창업기업 35개가 선정됐다.

특히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의 종료시점인 2월 이후에도 이번 기획전 참여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매출 견인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쿠팡은 기획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판로 확대 및 제품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는 “온라인 판로 확대와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창업기업 지원에 나서 창업 활성화를 돕고, 서로 상생해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